

주영이는 웃고



천수는 울었다



부활 퇴장

차 - 22일 전남전 썩기골... 골감각 회복

프로축구 정규리그가 시즌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K-리그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인 이천수(25·울산 현대)와 박주영(21·FC 서울)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이천수는 22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후기 10차전 원정경기에서 관중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 후반 30분 퇴장당했다. 울산은 결국 0-1로 패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좌절에 이어 K-리그 2회 연속 우승이라는 남은 목표마저 이루기 힘들어졌다. 후반기 3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천수로서는 2경기 출장 정지는 기본이고, 상벌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시즌을 마감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반면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오랜 부진에 빠졌던 박주영은 21일 전남 드래곤즈와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44분 썩기골을 터트리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지난 7월 22일 삼성 하우젠전 인천전 이후 무려 3개월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모처럼 웃었다. 서울은 전후기 통합 순위 4위를 서둘러 박주영의 골이 반갑다. 서울은 전후기 통합 순위 4위를

李 - 판정불만 욕설...2경기 출장정지

유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 꿈을 키워가고 있다. 박주영이 골 감각을 회복해 준다면 무엇보다도 큰 힘이다. 이천수와 박주영의 명암은 지난해 시즌 막판에도 같았다. 프로축구 K-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놓고 최종 투표일까지도 예측하기 힘들 만큼 광광하게 맞서다 이천수가 9표로 차로 박주영을 누르고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천수는 챔피언결정전에서 사상 첫 헤트트릭을 작성하는 등 뛰어난 플레이로 울산을 9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다. 반면 신인상·득점상·MVP 등 '트리플 크라운'까지 기대됐던 박주영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로 결국 신인상에 만족해야 했다. 정규리그 19경기에서 12골을 터트린 박주영은 포스트시즌에 3골을 추가한 울산 마차도(17경기 13골)에게 추월을 허용, 득점상을 내줬다. 그래서 득점상은 포스트시즌 성적을 제외해야 공정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 막판 이천수와 박주영의 행보는 지난해와는 영 판판으로 흐름 분위기가.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인스 위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운데)가 23일 애틀랜타 조지아돔에서 벌어진 캔자스시티와의 미국프로풋볼(NFL) 원정경기에서 상대 선수들과의 접전끝에 놓친 공은 바라보고 있다. /연필뉴스

월드 터치다운 '폭발'

캔자스시티전 3개·팀은 패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위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나 피츠버그는 연장전에서 석패했다. 위드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애틀랜타 조지아돔에서 벌어진 정규시즌 7주차 원정경기에서 3차례 터치다운 리시브를 포함해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8개를 잡아 171야드를 전진했다. 위드는 지난 16일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6주차 경기에서 이어 2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찍었고 올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장 야드를 기록했다. 혼전에서 터진 역전-재역전-경기 종료 직전 동점 터치다운으로 위드의 득점은 하나같이 순도가 높았다.



프리미어리그 '핵이빨 소동'

이영표(토트넘 핫스퍼)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공격수 저메인 데포가 '핵이빨' 소동으로 곤경에 처했다. 문제는 23일(한국시간) 오전 끝난 토트넘 햄과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9차전에서 일어났다. 전반 종료 직전 데포는 웨스트햄의 아르헨티나 출신 미드필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데포가 나란히 옆에 앉아 있던 마스체라노의 왼쪽 어깨 근처에

턱을 대고 무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마스체라노는 오른쪽으로 왼 어깨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에 뒹굴었다. 경기 후 유력지 '더타임스'와 대중지 '더선' 등 영국 언론은 문제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을 곁들여 당시 상황을 보도, 데포의 행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의 마틴 울 감독은 경기 후 "데포가 마스체라노의 팔을 살짝 무는

토트넘 데포 태클에 격분 상대 수비수 어깨 물어

시용만 했다고 말했다. 마스체라노에게 물린 자국을 보여달라고 해바라. 그러면 그는 결코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울 감독은 "데포는 그 일이 있기 전 10분 동안 마스체라노에게 세 번이나 걸어 차였다. 데포는 그런 익살스런 방법으로 불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처드 카본 영국 체육장관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 소동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설기현, '위협적'이었는데...

아스날전 맹활약 불구 팀 패배...팀내 최고 평점 7

설기현(27)의 레딩 FC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아스날에 네 골차로 패했다. 설기현은 누적된 피로와 발목 부상을 딛고 선발 출전해 후반 31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아스날은 23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레딩의 마데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8차전 원정경기에서 간판 골잡이 티에리 앙리(2골)와 알렉산드르 콜롬비아 로빈 판 페르시가 릴레이 골을 터뜨려 '뚱뚱의 팀' 레딩을 4-0으로 제압했다. 아스날은 59초만에 골문을 열었다. 레딩 수비진이 체 전열을 갖추기도 전 판 페르시의 오른쪽 돌파에 이어진 크로스를 앙리가 오른쪽 인사이드 논스톱 슈트로 꽂아 선제골을 뽑았다.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설기현은 초

반면 수비에 적극 가담하느라 찬스를 잡지 못했다. 전반 23분 앙리 앞에서 인터셉트를 해낸 설기현은 2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기회를 잡았다. 설기현은 레딩의 오른쪽 코너킥을 아스날 수문장 엔스 레만이 권청으로 쳐내자 페널티지역 왼쪽에 도사리고 있다 흘러나온 볼을 강력한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했다. 발동에 감긴 설기현의 대포알 슈트는 골문 상단을 정확히 겨냥해 날아갔지만 몸을 날린 레만의 손끝에 스쳐 아웃됐다. 전반에 나온 레딩의 유일한 유효 슈트였고 득점에 가장 근접한 순간이었다. 한편 잉글랜드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랙티브는 이날 설기현에게 '레딩에서' 몇 안되는 위험(rare danger)'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팀내 최고인 평점 7점을 매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삼성-한화)(17:50·KBS2)

박경모 첫 챔피언

월드컵 양궁 男개인 우승

양궁 국가대표의 '말똥' 박경모(31·인천계양구청)가 월드컵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박경모는 23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열린 2006 월드컵 양궁 남자 개인전 결선에서 이탈리아의 일리리오 디 부오를 112-105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고 대한양궁협회가 전했다. 우승 상금은 미화 2만달러. 박경모는 예선 성적 2위로 4강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 스웨덴의 매그너스 페데르손을 109-104로 꺾은 뒤 일리리오 디 부오를 큰 점수 차로 눌렀다. 국제양궁연맹(FITA)이 올해 신설한 월드컵은 크로아티아, 터키, 엘살바도르, 상하이에서 리커브 부문 예선을 치러 남녀 각 4강이 개인전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박경모는 터키와 상하이 예선에 출전해 각 1위와 2위를 했다. 서거원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는 "처음으로 신설된 월드컵에서 정상을 차지해 한국 남자 양궁의 실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07년 대학 수시합격생을 위한 중국어 초·중·고 단계 완성 프로젝트.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233-9582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월드시스템 603-2752